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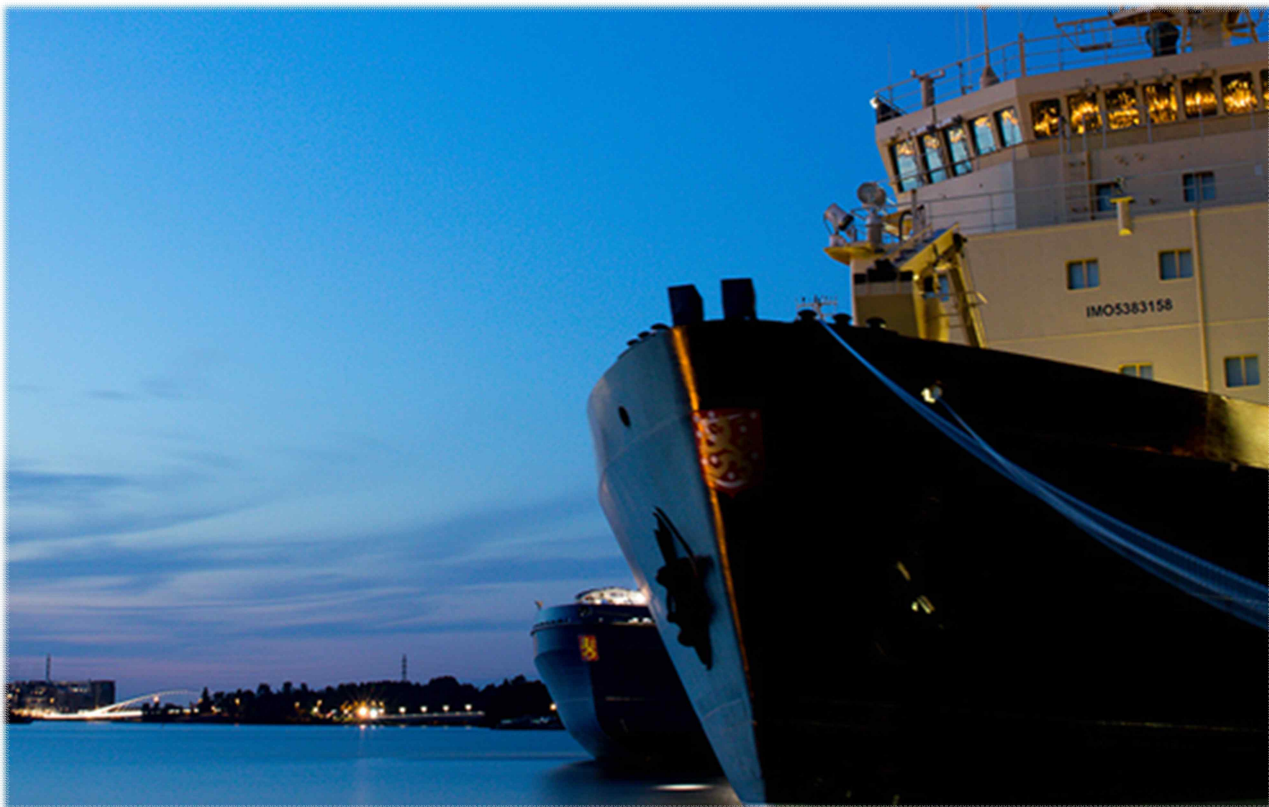
# 월간 일본 동향

## 2020년 11월

본 자료를 활용하실 경우, 해외수산협력센터  
(044-868-7833)로 문의/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

1. 도쿄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심포지엄 2020
  2. 일본 수산업 동향
- 



---

# 목차

---

## 1. 도쿄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심포지엄 2020

- (1) IUU 관련 일본/EU 국내 법제화 01
- (2) 전자 모니터링(EM), 전자 보고(ER) 08
- (3) 동아시아에 만연하는 IUU 조업 13
- (4)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17

## 2. 일본 수산업 동향

- (1) 국내 불법 어획물 거래 규제 22
  - (2) 방어 한국 수출 꾸준히 증가 추세 26
  - (3) SDGs 수산기업 공헌도 평가, 일본기업 6社 29
  - (4) 이력 추적 프로젝트 “Ocean to table” 32
-

# 1. 도쿄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심포지엄 2020

## (1) IUU 관련 일본/EU 국내 법제화

일본은 최근 불법 수산물 유통을 일본 국내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법제화를 통해 진행 중이다.

EU는 일찍이 IUU 어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이력 추적 (Traceability)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국내 정책을 보완 중이다.

IUU 근절을 위한 국내 법 제정, 국제 협력은 이번 도쿄 지속 가능한 수산 식품 심포지엄 (TSSS 2020)의 가장 중요한 테마였다.

### 패널 디스커션 “IUU 조업 대책 법제화가 가져올 일본 수산업의 미래”

#### ■ 참가자

- 진행 : 주식회사 시푸드 레거시 대표이사 하나오카 와카오
- 패널1 : Sailors for the Sea Japan 일본지국 이사장 이우에 미나코
- 패널2 : 수산청 가공유통과장 아마노 마사하루\*
  - \* 수산 밸류체인 사업 창설, 수산 수출 확대, 어획증명제도 법제 검토, 스마트 수산 가공 유통 WT 검토, WTO 對 한국 상급심 대응 등 담당
- 패널3 : 홋카이가가쿠엔 대학 경제학부 교수

#### ■ 개요

- 일본은 최근 불법 수산물 유통을 일본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법제화를 통해 진행 중

- 
- 일본의 사례와 EU, 미국의 선진 사례를 통해 IUU 조업 대책 구상 현황과 미래에 대해 고찰

## ■ 현황 및 과제

- 수산 선진국인 일본, EU, 미국은 수산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관여하는 **관련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이력 추적 (Traceability)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있음**
- 생산-유통단계를 구분하여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최종 단계인 소비자까지 확실한 정보전달을 목표로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함**
- 선진 사례를 참고하면서 국내에서 IUU 조업으로 어획된 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되, IUU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제연계가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

## ■ (발표1) Sailors for the sea 발표

- 일본은 세계 제3의 수산물 소비 대국
- 일본이 수산물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칠레, 러시아
- EU KDE\* 분석, US KDE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이 가능한 형태로 일본 국내 법제를 구성해야 함**

\* Key Data Elements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 (IMO번호, 선박 명, 수입회사 명, 기국, 수출, 재수출자 정보, 국제 콜사인, 제품 타입, 어종, FAO 코드 등에 대한 기준)

- 
- (IUU 규제 필요성에 대한 세계 규모의 흐름) ‘99년 FAO IUU에 대한 행동계획, ‘15년 SDGs 14-4 2020 목표, ‘19년 G20 오사카 정상 선언
  
  - (일본의 최근 대응) 수입 수산물, 국산 수산물, 기타 논의
    - (수입 수산물)
      - (1) 어획증명서 제출 의무화
      - (2) 모든 어종 대상 목표 우선순위 설정
      - (3) 전자화 제도 설계
      - (4) 국제연계, 각국에의 기술협력
  
    - (일본 국산 수산물)
      - (1) 어획 보고 의무
      - (2) 어획증명서 발행
      - (3) Traceability (이력 추적) 확인
      - (4) 모든 어종을 최종목표로 우선순위 어종을 결정
      - (5) IT 활용
  
    - (기타 논의) 투명성 확보 · 각계 관계자 협력
  
  - (EU의 대응) 국내어업, 수입 수산물, 상대국에 대한 규정 확립, EU의 IUU 정책은 수양, 원산지로부터 식탁까지 일관성 있게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 하에, EU 가맹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 대해서도 규정을 적용
-

- (국내어업) 공통 어업 정책(CFP)에 의한 어획규제, ‘10년부터 모든 수산물에 어획증명서 부착이 의무화됨
- (수입 수산물) EU 해역 내에서 어획된 수산물 이력 추적 (Traceability)를 강화하면서 수입 수산물에 어업국의 인정을 받은 어획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IUU 수산물 수입을 배제
- (상대국) 국내에서 적절한 IUU 어업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옐로카드로 지정, 개선조치 협의, 개선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레드카드로 지정하여 수산물 수입을 거부

### < EU 어획증명서 · 간판표시 의무 >

(바르셀로나 도매시장(좌), 런던 어시장(우))



## < 추적 이력 공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간판, 포장) >



### ○ (미국의 대응)

- '14년 IUU 조업 대책에 관해 대통령 TF를 설치
- '15년 “행동계획”을 제정하고, IUU 조업 단속을 위한 국내 연계 확대, 법 집행력 강화, 수입된 수산물 추적 이력(Traceability) 프로그램 개발 등을 결정
- '16년 12월 해양대기청(NOAA)에 의한 수산물 수입 감시 제도 (SIMP :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를 제정하는 최종 규칙 발표
- 미국 수입업자에 대해, 어획·양륙 단계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양륙 단계에서 수입 단계까지의 기록 보존을 요구
- '18년 1월부터 일부 어종(총 13종)부터 대상으로 하고 수산물 수입감시 제도를 시행

- 
- (대상어종) 전복, 해삼, 상어류, 새우, 대서양 대구, 태평양 대구, 만새기, 참바리, 참돔, 왕게, 청게, 돛새치, 참치류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가다랑어)

## ■ (발표2) 일본 수산청 가공유통과장 발표

- (개정 어업법) 특정 수산동식물 채포, 위반 어획물 수수를 금지하는 개정어업법 ('18년 제출) 정해진 법률이 올해 12월 1일 시행될 예정
  - 생산단계에서 불법 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조치되었으나 어업법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에서도 불법 어획물 유입을 방지, 국내 유통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
  - 특정 수산동식물 채포 금지 위반, 불법 어획물 유통 시 벌금액을 개인에 대한 최고액으로 조정 (3000만 엔, 약 3억 원 정도)
  - 전복, 해삼 어획량이 줄었고 성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일본 국내에서는, 밀어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해삼은 일본 수산물 수출 1할을 차지 (홍콩, 중국에 수출 중)
- (IUU 관련 대응) IUU 조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이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됨 ('20년 10월)

- 세계적으로 EU, 미국에서 이미 IUU로 어획된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법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 SDGs 글로벌 지표 ('15년 9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 ('19년 6월)에서 IUU 조업 근절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음
- 하나의 법제로 국제/국내 과제 둘 다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

**< 수산청이 검토 중인 어획증명 법제화 상세 내용 >**

구분	상세 내용
국산품	(1) 국내에서 위법 또는 과잉 어획될 위험이 큰 어종을 정부가 지정 (2) 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어민, 어협은 농림수산성 또는 도도부현 (지자체) 행정부처에 신고 (3) 자신의 조업이 어업법을 바탕으로 한 합법적인 것임을 증명 (4) 행정부처는 합법한 어민과 어협에 개별적으로 신고번호 통지
수입품	(1)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획의 우려가 강한 어종을 농림수산성이 지정 (2) 해당 어종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수입하는 업자에게 세관에 증명서류 제시를 요청 (3) 관계자에 따르면 현황, 수입 시의 증명 내용은 ① 어선 명, 등록번호, ② 어획 수역, ③ 어종, ④ 중량, ⑤ 수양일을 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어선 기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공통	* 증명 첨부가 없는 대상 어종 수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기타 위조 신고 등에도 벌금을 부과 * 단,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범위 내”에서 경과 조치를 취함 * 시행일은 법률 공포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상정

---

# 1. 도쿄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심포지엄 2020

## (2) 전자 모니터링(EM), 전자 보고(ER)

전자 모니터링 (Electric Monitoring)과 전자 보고(Electric Reporting)이 IUU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어업관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방식에 비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데이터 수집 시, 어민, 수산가공업자 등 현장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TSSS 2020에서는 향후, 전자 모니터링, 전자 보고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

### 패널 디스커션 “전자 모니터링(EM)과 전자 보고(ER)로 일본 어업이 변한다”

#### ■ 참가자

- 진행 : Environmental Defense Fund 해양부문 재팬 디렉터  
오오츠카 카즈히코
- 패널1 : 공립 하코다테 미래대학 교수, 수산과학 박사, 와다 마사아키
- 패널2 : 오션 솔루션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표, 미즈카와 요스케
- 패널3 : Environmental Defense Fund 해양기술 솔루션 & 해양  
스마트 보트 프로그램 디렉터 Shems Jud
- 패널4 : intertidal Agency 설립자, Kate Wing

#### ■ (발표1) 스마트 수산업 전망 (공립하코다테 미래대학, 와다 마사아키 교수)

- 현재 수산업에 적용 중인 IT 기술 소개

## Ocean AmeDAS (해수온 관측 네트워크)

### ▶전국의 연안을 대상으로 한 해수온 관측 부이를 개발



#### (1) 어민의 과제

- 지구온난화로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어업으로 어장형성이 변화하고 양식업에서 폐사가 자주 발생, 정치망 어업에서 어종이 변화
- ⇒ 환경변화에 순응하여 조업 형태 등을 변화시켜야 함

#### (2) 해양 환경 가시화

- 해수온 관측 부이 도입
- 다점다층 관측 실시
- 실시간 정보 발신

#### (3) ICT 활용 효과

- 해수온 상태가 수치와 그래프로 가시화됨
- 감각 경험이 검증을 통해 강화됨
- 효율적이면서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해짐

#### (4) 도입 방법

- 부이 제작회사가 실용 제품화

## Ocean x-lay (수산자원관리 시스템)

### ▶ 홋카이도 돌기해삼을 대상으로 자원평가 절차 개발



#### (1) 어민들의 과제

- 중국 시장 개척에 성공한 홋카이도산 돌기해삼은 가격이 급등하고 어민들의 어획의욕이 향상되어 난획 상태, 자원량이 감소하고 고갈되어버릴 위기에 직면

#### (2) 수산자원 가시화

- iPad 도입
- 어획정보 공유
- 위치정보 공유

#### (3) ICT 활용 효과

- 자원 현황이 맵과 그래프로 가시화
- 어민이 주체가 되는 자원관리 실현
- 효율적인 기술 계승 (후계자 육성)이 가능

#### (4) 도입 방법

- IT 벤더 서비스화

## ■ 논의 개요

- (미국) 전자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기후변동, 어군 이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대두
- (일본) 새롭게 개정된 어업법이 '20년 12월 시행될 예정, 이에 따라 어업관리에서 전자 데이터 활용/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
  - 자원평가, 분석만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민이 궁극적인 데이터 활용자가 되게끔, 데이터 제공 시의 이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산란장, 금어 시간, 어군이 있는 곳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기후변동도 일어나고 어군도 이동하는데 데이터 관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데이터 수집의 의미가 없음

## ■ 향후 과제

- (데이터의 일관성) 경제·생물학·사회적 데이터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전자 모니터링, 전자 보고의 중요성) 기후변동, 어군 이동 등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필요
- (어민들의 이해 필요) 데이터 제공자이자 최종 활용자인 어민들이 “실시간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이점을 제시해야 함

- 
- 현장에서 어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전략과 목적에 부합한 데이터 수집 접근 방식이 필요
  
  - 어민들에게 데이터 공유 보고 의무만 두지 않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같이 둔다면 정보 공유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음
  
  - (바다 자원 가시화) 향후 바닷속 자원이 가시화될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면 자원 관리가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어족자원을 얼마나 어획했는지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 (데이터 전략 필요성 재고)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지를 명확히 고려하여 데이터 전략을 디자인해야 함

---

# 1. 도쿄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심포지엄 2020

## (3) 동아시아에 만연하는 IUU 조업 실태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IUU 조업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TSSS 2020에서는 “비즈니스와 인권, IUU”, “동아시아에 만연한 IUU 조업” 두 섹션에서 IUU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 ■ 동아시아에서 IUU 문제

#### ○ 중국원양어업 (Distant Water Fishery) 법규제

(1) 해양 어업 : 공해에서 어업 및 관련된 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형선박, 대상 종은 일반적으로 해양 회유어, 주로 참치, 오징어, 통상적으로 해양어업 관리 주체는 RFMO

(2) 대양 횡단 어업 : 타국의 EEZ 안에서의 어업. 중국 어선은 중국 정부와 연안국 정부 간에 양국간 어업협정을 통해, 또는 지역 어업회사와의 사업협력을 통해, 수입국 정부로부터 어업허가를 취득

⇒ 최근 개정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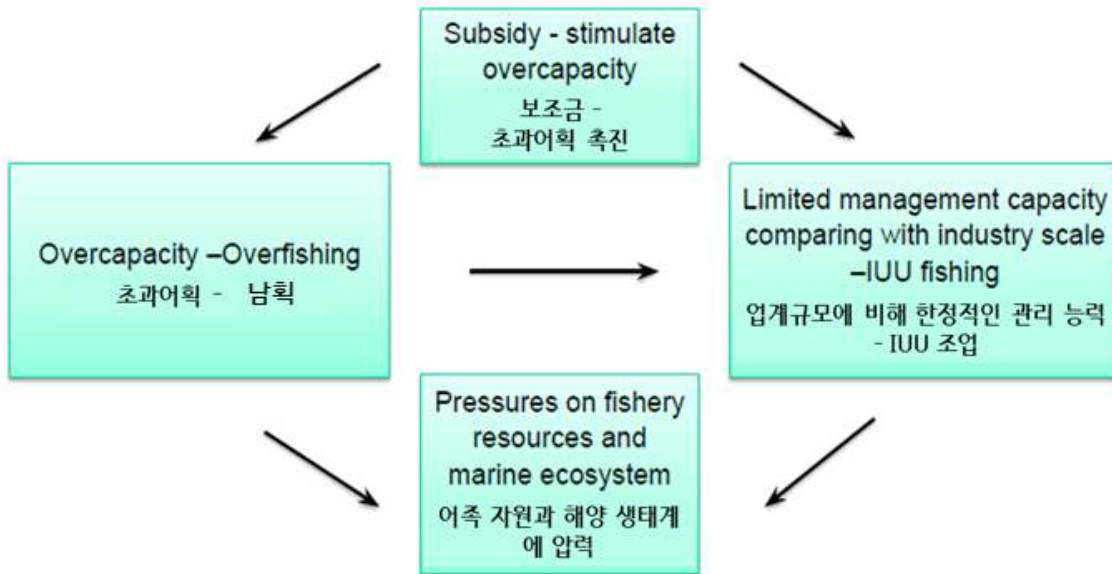
정부는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의 발전을 지원,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 과학적인 레이아웃을 정비하여, 근대화된 원양어업 생산 시스템을 확립 (생략) ('20년4월1일부터 발효)

- “원양어업 직원 블랙리스트 제도” 실시
- IUU 조업을 한 선박에 대한 연간 보조금 취소

- 업계에 대한 기준 강화

- (1) 어업 자원 상황, 현재 어업량, 향후 전망에 관한 평가가 필요
- (2) 과거 3년간, 회사 경영진은 블랙리스트에 실린 적이 없어야 함

< 중국어선의 IUU로 촉발되는 문제 >



출처 : TSSS 2020 2일차, GREENPEACE 발표자료

< 일본과 중국의 수산 서플라이 체인에서 가장 우려되는 IUU 어종 >



참치류



장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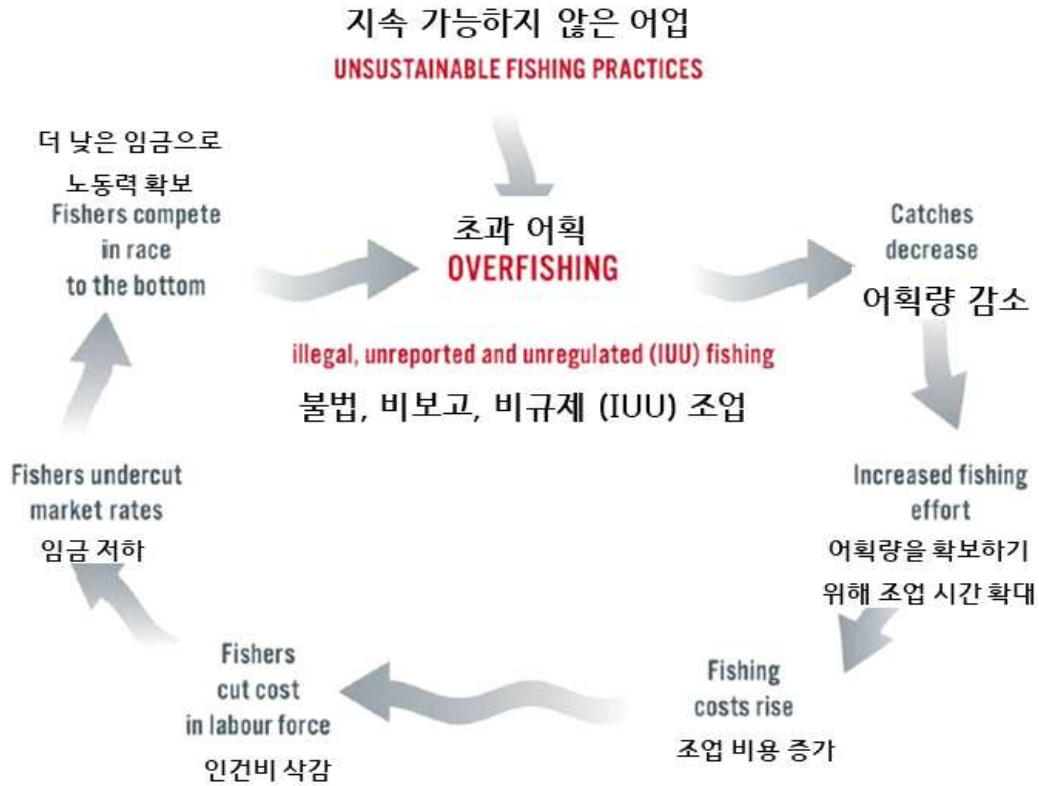
오징어



해삼

출처 : TSSS 2020 2일차, GREENPEACE 발표자료

## < IUU 조업과 인권 침해 >



출처 : TSSS 2020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발표 자료

## < 한국어선 前 선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선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응답 >

어선에서 있었던 행위	표본 응답 비율 (n=54)
<b>인권문제</b>	
임금 체불	93%
하루 18시간 이상의 노동	57%
1년 이상 해상에서 지속적인 근무	19%
학대	26%
언어 학대	63%
여권 몰수	94%
<b>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b>	
금지 구역에서의 조업	20%
의도적인 포유류 포획과 살처분	28%

## ■ IUU와 인권

- (지금보다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지는 인권 문제) 소비자,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
  - 일부 NGO에 의해 IUU 조업에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 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조사 필요
- 특히, 투자자는 밸류체인 리스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권 피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와 조치가 있는 기업에 더 투자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음
-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IUU 조업) IUU 조업은 세계 어획의 15%에 상당하는데, RFMO에서는 비회원국에 의한 IUU 조업 규제가 쉽지 않음
- (이력 추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 이력 추적 확보를 통해 인권문제, 소비자의 더 나은 선택문제 등 부수적인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

# 1. 도쿄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심포지엄 2020

## (4)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일본 환경성은 SDGs 목표에 대해 재고, 국내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탈탄소, 순환경제, 분산형 사회로의 이행을 기본 목표로 세부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들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오사카 G20 회의에서 “블루오션 비전”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가 범지구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해양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된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다.

###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4가지 관점

(1) 근본적 방안	플라스틱 소비 자체를 줄이기
(2) 사전 방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해변 등에서 회수*
(3) 환경친화적인 플라스틱 개발	바다에 흘러 들어가도 되는 플라스틱 만들기 :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개발
(4) 사후 처리	이미 바다에 있는 것을 회수*

\*해양 쓰레기 회수 방안은 현재처럼 자원봉사만으로는 부족함, 제도적인 개선과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

### ■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 (정부 대응)

- 어민이 자원해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방식 ('20년부터 7개 지역에서 실시)

- '20년 7월부터 비닐 봉지, 쓰레기 봉투 유료화
- 농림수산업에서 이산화탄소 “0” 목표로, 환경성과 농림수산성이 연계하여 생산에서 폐기까지 푸드 서플라이 체인 탈탄소화를 진행 중

○ (기업 사례)

기업명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 내용
스타벅스 재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벅스 재팬에는 서플라이 체인본부 Ethical Sourcing Sustainability team을 두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품 자재 개발에 주력</li> <li>▶ 오키나와 모토부쵸 지점에서는 오키나와 해안에 표류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트 소재로 활용, 직원들과 해변 플라스틱 쓰레기 치우기 봉사활동 (사회적 인식 재고)</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div>

▶ 일부 아이스 음료에도 종이컵 도입



▶ 라벨 없이 판매



아사히

▶ 숲의 텀블러 (파나소닉 - 아사히 공동 개발)

- 친환경 신소재 맥주용 re-use 컵 (플라스틱, 종이컵 대체)



▶ 도쿄도 프로젝트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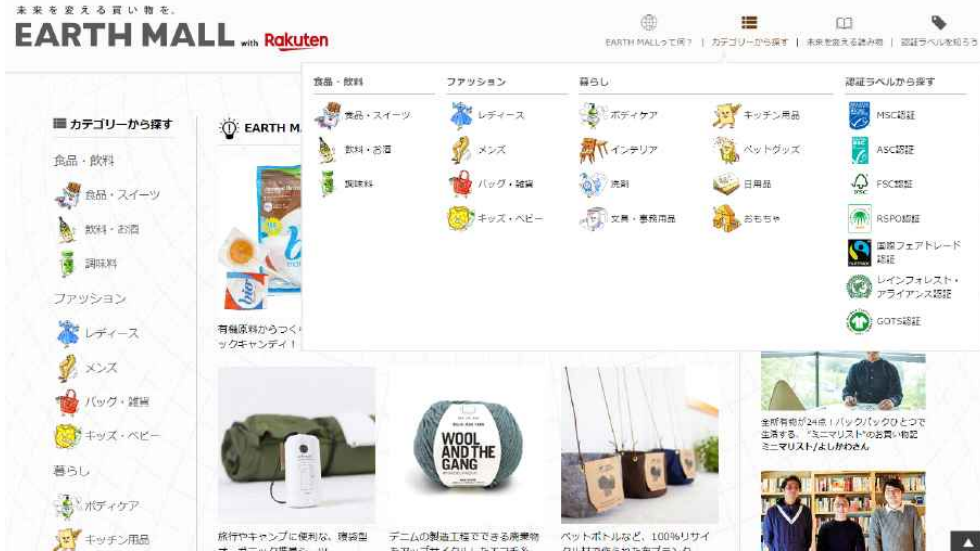
- 아사히 외 7개 음료회사가 뚜껑, 라벨에도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

미쓰비시  
케미칼

- ▶ 폐 플라스틱 재사용
- ▶ 폐기물이 최소로 발생하는 신소재 연구 추진

라쿠텐  
(EARTH  
MALL)

- ▶ MSC, ASC 인증 마크별로 상품 검색
  -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상품 위주의 판매 플랫폼



## ■ 향후 과제

- 기업으로서는 플라스틱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지
- 기술적 혁신, 사회적 구조 혁신이 동반되어야 함
-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 개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회수가 초기에는 과도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공헌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정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협조가 필요함
  - 플라스틱 자체의 소비를 줄이거나,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정부, 기업, 민간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기업
  -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임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이점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늘려가야 함
  -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손해로 귀결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주도하는 선진기업으로써 사회적 공헌을 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야 함
- 출처 : <https://sustainableseafoodnow.com/2020/program/>

---

# 1. 일본 수산업 동향

## (1) 국내 불법 어획물 거래 규제

일본 수산청이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국내에 유통되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규제이다. IUU 조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계, IUU 어획물이 국내에 유통되어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 
- 불법 어획물 유통을 방지하는 “특정 수산 동식물 등 국내 유통 적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임시 국회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
    - 국산품, 수입품 각각에 대해 불법 어획되기 쉬운 어종을 정부가 지정하여 취급업자가 생산 합법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정보 전달 및 기록을 요청하는 내용
  - 법률이 성립된 경우에도 규제의 실효성과 업자의 부담 경감의 밸런스를 보면서, 어종 선정이나 단속 체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동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수입품 대상종과 그 어종을 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수입하는 업자에 세관에 적법한 어획증명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됨
  - 국산품 대상종 취급업자는 신고제로 하여, 취급 시, 신고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 전달 보존 의무를 부과

- (우려 의견) 대일본수산회는 “어민, 유통관계자의 절차상 부담이 상당하다. 대상 어종은 엄선해야 한다”고 요청
  
- (우려 의견2) 대만이나 중국 배가 대서양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를 IUU 어획하여 감시가 비교적 적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양륙, 본국에 가져가 가공한 뒤,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렇게 되면, 양륙 시, 어종 확인 등 엄격한 단속을 받고 있는 일본 원양업자가 도리어 손해를 볼 수 있음
  
  - 해상 전재 시 단속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어종 확인이 어려운 가공된 어류의 경우, 어종 위장을 방지 하기 위한 DNA 검사 강화 등의 조치 필요
  
  - 수산청, 경제산업성, 외무성이 함께 움직여 IUU 어획물 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함
  
- (IT 활용 제안 의견) 어민, 유통관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해서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 
- (대상 어종 확대 희망 의견) 대상 어종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도쿄 근교 하네다 시장의 노모토 요헤이 시장은, 불법 어획물로 보이는 장어 치어나 참다랑어 거래와 관련된 소문이 있는 점, 제3국 경유로 보이는 수입원료가 국내 가공업자들에게 유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 어종을 자원이 격감하고 있는 어종들로 더 넓혀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
  
  - (과제 : 타국 협조 검토) 수입 규제에 대해 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외무성을 통해 수입하는 국가에도 부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민당 중원의원)
    - 서류 준비는 상대국 업자의 일이기 때문에 국내 수입업자의 일은 많지 않아 (수산청 가공유통과) 업계의 허들은 비교적 낮았음
  
  - 출처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des/106664>

< '15년 일본이 수입한 어획물 총 27품목 (수입 상위 9개국) 중,  
IUU 어획 비율 추이 >

국명	불법, 비보고 어획의 평균 비율 (%)	수산물	수산물별로 불법, 비보고 어획의 범위 (%)	2015년 일본에의 수입량 (톤)	불법 비보고 어획량 (톤)	
					하한	상한
한국	16-24	눈다랑어	20-30	9,271	1,854	2,781
		삼치	10-17	1,560	156	265
		다랑어류	17-25	612	104	153
중국	36-57	오징어, 참오징어	35-55	77,000	26,950	42,350
		장어	45-75	18,138	8,162	13,603
		새우	40-60	8,147	3,259	4,888
		다랑어류	26-37	7,675	1,995	2,840
러시아	25-36	연어	30-40	32,553	9,766	13,021
		게	17-25	14,941	2,540	3,735
		성게	27-45	7,994	2,158	3,597
칠레	24-35	어분	40-55	17,675	7,070	9,721
		성게	16-27	1,922	307	519
		메로 (이빨고기)	16-22	147	23	32
태국	24-35	오징어, 참오징어	25-35	10,973	2,743	3,840
		새우	25-37	3,568	892	1,320
		다랑어류	21-30	2,420	508	726
미국	12-20	명태	15-22	122,280	18,342	26,901
		연어	10-20	22,065	2,206	4,413
		게	10-18	6,501	650	1,170
인도네시아	23-32	가다랑어	20-30	28,471	5,694	9,110
		새우	30-40	15,368	4,610	6,147
		참치	18-25	7,491	1,348	1,873
베트남	32-50	새우	35-50	15,000	5,250	7,500
		오징어, 참오징어	30-50	6,289	1,886	3,144
대만	22-35	눈다랑어	23-40	36,434	8,380	14,573
		황다랑어	22-30	18,022	3,965	5,406
		장어	22-35	3,275	720	1,146
합계				495,792	121,538	184,774

출처 : Marine Policy, "Estimates of illegal and unreported seafood imports to Japan, 2015"

---

# 1. 일본 수산업 동향

## (2) 방어 한국 수출 꾸준히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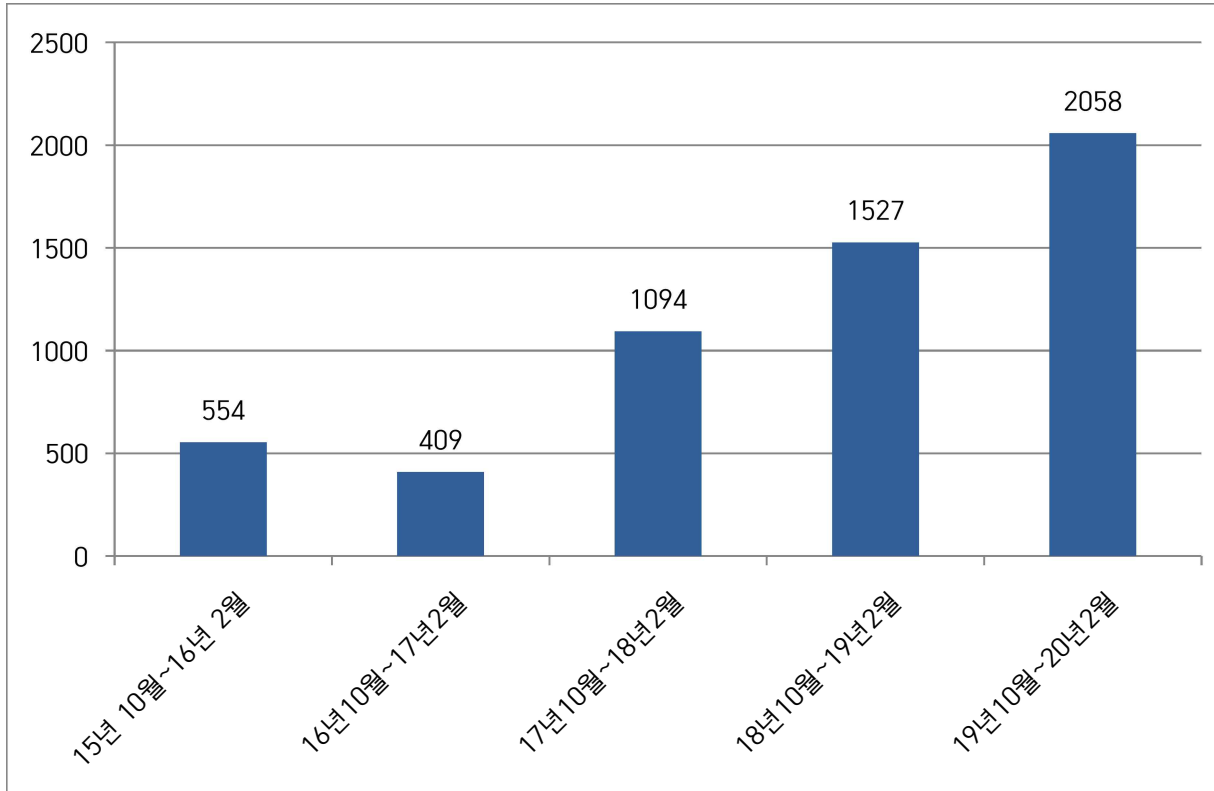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방어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 양식 방어이다. '16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본산 양식 방어 가격이 낮아지고, 재고량도 늘어나 전년보다도 수입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 일본산 양식 방어의 10월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263.1톤이었음
- 한국에서는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기간이 방어 수입 시즌

## < 방어 한국 수출량 추이 >

(단위 : 톤)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이 수입하는 방어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 양식 방어, '18년에 검역조사가 간소화된 것이 계기로 수입 수량이 늘어나고 있음
- '19년기 ('19년10월~'20년2월)에는 사료 첨가물 잔류 검사를 한국이 강화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수입량이 줄었지만, 한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어로 대응하여 금방 다시 회복
- 동기 일본산 방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한 2058톤
  - 이번기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본산 기적이 낮아지고, 재고량도 있어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

- 
- '20년 1~10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945.2톤
    - 1~2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매일 꾸준히 5~10톤 기준으로 수입되어 10월부터는 본격화
  - 출처: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6742>

# 1. 일본 수산업 동향

## (2) SDGs 수산기업 공헌도 평가, 일본기업 6社

기업의 목표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다. 수산기업도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에는 변함이 없다.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이 다음으로 관심을 뒤편해야 할 화두로, 최근 SDGs 달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SDGs 에 대한 공헌도는 기업의 이미지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지속가능성을 배려한 사업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는 수산기업 30사의 SDGs 공헌도 순위 >



注:WBA資料から作成

- 세계 금융기관들이 가입되어 있는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WBA) 는 “도쿄 지속가능한 수산식품 심포지엄 2020”에서 (주최 : 씨푸드 레거시, 닛케이BP) 세계 수산 대기업 30사에 대해 UN이 정한 SDGs 달성에 대한 공헌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 (독자적인 지표로 측정)
- WBA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는 수산 회사 30社를 선정

- SDGs 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
- 일본기업은 8위의 미츠비시 상사를 필두로 “일본수산, 마루베니, 마루하니치로, 쿄쿠요, 요코하마 냉동” 6개사가 선정됨
- WBA는 미츠비시 상사나 일본수산, 마루하니치로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해 향후 정보 공개를 보다 충실하게 한다면 평가 점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개선 방안을 제시
- 세계적으로 식품 사업을 대상으로 용자를 제공하는 라보뱅크 (네덜란드)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 최근 수년간 지속가능성을 배려한 사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
- 기업 평가에는 WBA의 독자적인 지표를 활용한다고 언급
- WBA는 수산기업 공헌도를 5가지 분야로 평가
  - 랭크인 한 일본의 6개사 평균 점수는 “인권과 노동환경” 분야는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지속가능성 (이력 추적) 전략” 등 남은 4개 분야는 평균보다 약간 낮았음
- “지속가능성 전략” 개선 여지로서 자회사나 서플라이 체인을 포함한 그룹 전체 사업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
- “이력 추적과 조달” 분야에서 제품 원산지 공개를 늘리고, “에코 시스템·임팩트” 분야에서 양식·어업 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완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측정하는 것을 제시

- ‘09년부터 ‘19년까지에 걸쳐 대상기업 등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융자를 실시하는 Sustainable Finance 의 규모가 51배로 확대됨
- 기업은 향후 지속 가능성 관련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보다 제대로  
관리해가는 것이 극히 중요
- 세계적인 자산운용회사인 로베코 (네덜란드) 는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과제를 갖고 있는 수산기업과 대화하여 과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소개
  -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
- 출처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6134>

---

# 1. 일본 수산업 동향

## (2) 이력 추적 프로젝트 “Ocean to table”

도쿄 지속가능한 심포지엄 2020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IUU 근절을 위한 이력 추적 (Traceability)이다. 최근 일본 수산기업과 IT 기업, 유통/판매 기업이 함께 “Ocean to Table”이라는 이력 추적 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 도쿄 지속가능한 심포지엄 2020 4일차는 IUU 근절에 중요한 Traceability (이력 추적, 상품의 출처,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것)가 테마
  - Global Dialogue on Seafood Traceability (GDST)는 세계 최초로 수산물 이력추적 국제 기준 만들기를 진행하는 국제 플랫폼
    - 홈페이지 : <https://traceability-dialogue.org/>
  - GDST는 세계에서 수산유통에 관한 6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 이력 추적 확립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짐
  - 어획, 수양, 가공 등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떠한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가 (예) 어획 시 어선명이나 어종별 어획량 등을 기록한다)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하고, 각 업자가 일관성, 호환성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음
  - 수산기업이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추적 이력을 확립해가기 위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9일 논의에서는 GDST에 참가하는 아지노모토,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메트로 社 (독일), Culinary Collaborations (미국)이 참가, 국제자연 보호연합 (WWF) 재팬이 진행을 맡음
- 소비자에 정보 공개하는 방향으로 국내에서 연내 실시 예정
- 11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수산물의 이력 추적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처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Ocean to Table”에 대해 활동 보고
- 동 프로젝트에서는 어민이 최신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해서 어획, 어장 정보를 기록
- 정보 조작을 방지하는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
  - 라쿠텐 EARTH MALL 온라인 샵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장 위치나 지속가능한 어업을 목표로 하는 어민들을 위해 대응, 조치 등을 전용 앱에 표시하여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성을 확보할 예정
- 올해 연말 정도에 시스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프로젝트에 참가한 기업은 일본 IBM, 라쿠텐, I X Knowledge Inc, 씨푸드 레거시, 카이코 물산(海光物産), 라이트 하우스 총 5社

< Ocean to Table 프로젝트 전용 앱 화면 >



< Ocean to Table 프로젝트 전용 앱 화면 >



○ 출처: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6134>